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개막식후 참석 한 내빈과 운영위원이 미술제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개막식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感動을 포천에서”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25일 포천시 개막

순수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경향을 한 자리에서 감상해볼 수 있는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개막행사를 지난 25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아도니스호텔에서 참여작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개막행사는 오후5시에 포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8분의 1편과 현대인의 욕망'을 각각 주제로 하는 행위예술가 김백기 씨와 류환 씨의 개막 퍼포먼스가 30분간 펼쳐졌다.

개막식에서 이병석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장장은 "이번 미술제는 포천시의 문화발전,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활력제공은 물론 문화도시로서 포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시회 개막테이프 커팅에 이어 포천아도니스 호텔에서 이번 미술제를 축하하는 케이크 절단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리셉션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작가들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도 했다.

25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열흘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리셉션에서 축하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간 '통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미술제에는 우리나라의 현대회화와 조각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중견작가가 참여해 자신들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평면, 입체,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부현대미술제는 치열한 창작열정과 실험정신, 다양한 소재 등으로 매년 주목을 받아왔는데 올해 미술제 역시, 작가정신이 새로

여하는 누드크로키 대회도 열린다. 남부현대미술제는 1985년 광주의 '현대작가 에보꼬', 부산의 '역 미술동인회', 제주도의 '관전 미술동인회'가 함께 모여 시작한 이래 22년 동안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중앙권중화에서 벗어나 각 개최지의 독특한 정서와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의 미술이 서울과 균형 을 이루며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 새로운 실험정신과 도전 의식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선도 할 뿐만 아니라 세계미술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승화, 발전 시켜 왔다.

특히 포천에서 열리는 올해 미술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회 제주에서부터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이르기까지 21년 동안 남부현대미술제는 영호남과 충청, 제주도의 대도시에서만 개최돼 왔으나 경기도 포천에서의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남부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미술제라 보 다 확고히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23 최익현(崔益鉉)의 위정척사(衛正斥邪)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1905년(고종42년) 치욕의 '을사 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최익현은 "위정척사"를 실천하여 최선비의 도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을사조약을 결사반대하며 매국5적을 처참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상경하려 하였으나 왜병들의 저지르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에 최익현은 팔도 사민(八道士民)에게 포고문을 보내어 우리민족이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당당한 자주 민임을 밝히고 왜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는 오직 결기투쟁만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1906년2월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창의(倡義)를 위하여 호남으로 떠나면서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와 기일본정부서(寄日本政府書)를 발표하였다. 창의토적소에는 '국가패망의 때를 당하여 여러 동지와 더불어 주기로 싸우기를 결심하고 의기(義氣)를 높여 더불어 장차 복상코자 한다.'는 내용의 것으로 구절마다 애국충정의 열이 가득하여 가슴을 저리게 한다. 최익현을 따르는 의병군은 그를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총을 든 사람, 창칼을 든 사람들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국충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의 의병군은 정음, 곡성, 순창 등을 중심으로 크게 위세를 떨쳐 나갔다. 순창에 주둔하였을 때 관군의 습격을 받아 의사(義士) 정시해(鄭時海)가 순절하자 교전상대가 진위대임이 확인되자 조선인끼리는 싸울 수 없다가하여 최익현은 지체 없이 의병군의 해산을 명했다. 의병들은 통곡하였으나 최익현은 '어찌 동쪽끼리 서로 싸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간악한 일본헌병은 무저항 최익현과 그 제자 13명을 구금하였다가 서울로 압송, 일본군사령부에 감금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최익현을 조선 땅에 두고서는 유럽들의 저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마도로 압송한다. 최익현은 대마도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지경에 이르러 너희들의 음식을 먹고 너희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의(義)가 아니니 지금부터는 단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고종에게 유소를 썼다.

죽음을 입한 신 최익현은 대마도 경비대안에서 삼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상소를 올리옵니다. 실사 저들이 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은 차마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배를 더럽힐 수가 없사옵니니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사옵니니다. 신의 나이 74세, 죽음을 그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국사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군왕의 덕을 분발 하시어 믿어서는 아닐 일은 믿지 마시고 더욱 자주 의 계획을 굳혀 영원히 의외하는

마음을 끊고서도 세상의 형평을 살펴 그 가운데서 할 일을 선택 하소서.

면담 최익현은 굶어 죽으면서도 임금의 분발을 촉구하는 직언을 했다. 그는 정학(正學)과 정도(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 이단을 물리치는 이른바 위정척사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해 보았다는 점에서 지식인의 귀감이 되었다.

면담 최익현이 왜국 땅 대마도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남긴 유시(遺詩)는 지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기침북두배경루(起瞻北頭拜樓) 일어나면 북두를 우러르고 임금계신 곳에 절하면

백수만삼분계류(白首蠻衫濱涕流) 흰머리 오랑캐의 옷자락에 분한 눈물 쏟아져 흐르네

만사불탐진부귀(萬死不貪秦富貴) 만번을 죽는대해도 부귀는 탐하지 않으리

일생장독로춘추(一生長讀魯春秋) 평생 읽는 글이 노나라의 춘추라네

평생을 읽는 글이 노나라의 춘추라고 되어있는 대목은 느끼게 하는 바가 너무 커서 백번을 읽어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역사를 소중히 하는 마음 역사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이 있었기에 신하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스승으로서의 도리, 제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었다. 직언직필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면담 선생이 그리워진다. 학행일치(學行一致), 지행일치(知行一致)하는 참선비의 모습이다.

승인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3천7백만원이 증액된 2억9천4백72만원이 승인됐으며, 문화학교 지속운동을 비롯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추진, 반월문화제의 종합문화행사 개최, 포천문화, 문화사랑 책자발간, 특수시책으로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교양강좌,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선진문화의식고도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고유문화 정체성 확립 總力 다짐

포천문화원 2006년 정기총회 200여명 참석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은 지난 24일 유림회관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임·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공이 많은 대진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박경자 교수를 비롯한 관계인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시민이 동참

하여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원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과 전통 문화를 꾸준히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

3월의 독립운동가 신홍식

3.1운동 주도 33인으로 2년 수감생활

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공동으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3.1운동을 주도하신 동오(東吾) 신홍식(申洪植) 선생을 2006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신홍식 선생은 1872년 3월 1일 충청북도 청주군 문의면 문산리에서 아버지 신기우(申基雨)와 어머니 최살림(崔撒立)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젊어서는 뚜렷한 직업 없이 과거시험에 전념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선생은 1904년경 기독교에 입교하여 신앙 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선생의 일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됐다. 1906년 충청남도 천원군 직산면 직산교회 전도사로 본격적인 목회활동을 시작한 선생은 1910년에 김리교 계통의 협성신

학교에 입학하여 1913년 졸업했다. 졸업 당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1913년 집사목사를 안수 받은 후 공주지방 순회목사로 부임했으며, 1917년에는 평양 남산현교회로 파견됐다. 평양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적인 기독교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선생은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참담한 민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족운동가로 변신을 꾀한 것이다.

1919년 2월 중순경 순경도 목사의 권유로 이승훈 선생을 만나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 모임에서 평안남도 지역의 동지 모집 역할을 담당한 선생은 평양 지역의 목회자들인 아펜젤러기념교회 김찬홍 목사, 이문리교회 주기원 목사, 신양리교회 김홍식 목사와 접

촉하여 평양 지역의 시위를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역사적 날인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석하여 3.1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이 때문에 경성감옥(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2년의 수감 생활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일제의 강제 병탄 반대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 일제의 판사들에게 경중을 울렸다.

1921년 11월 4일에 만기 출옥하고, 이듬해에 인천내리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활동을 재개했다. 1922년에는 '인천내리교회시가'를 서술했고, 1925년 창립된 '흥업구락부'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흥업(興業)'은 표면적으로는 산업을 일으킨다는 취지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였다. 1930년대에는 흥업구락부 회원 일부와 '기독교신보' 계열의 개혁적 인물들과 결합하여 '적극신앙단'을 결성하고 적극신앙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신앙운동을 가졌지만 독립에 대비할 구성원들을 훈련시켜 실력을 양성한다는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큰 뜻을 다 펴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다 1939년 3월 18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에서는 선생의 뜻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와 사진을 3월 한 달 동안 전시할 계획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수필가 김창수의 <포천 이야기> (158)

진미 요리(珍味 料理)

중국 옛 주(周)나라 시대의 여덟 가지 맛난 음식은 첫째 '원송이입술' 둘째 '사슴 목줄' 셋째 '낙타발굽' 네째 '낙타의 육봉' 다섯째 '표범의 아기 보' 여섯째 '잉어꼬리' 일곱째 '메미의 배' 여덟째 '곰 발바닥' 아홉째... 일곱째 주대의 팔 진미(周代之八珍)라 하였다.

남송(南宋)의 고종이 즐기던 천하진미(天下之珍味)는 184가지나 되었다니 군함이나 비행기만 빼 놓고는 모두 음식 재료로 사용한다는 중국인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가리지 않는 중국 민족의 식도락(食道樂)에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내 고향 포천에는 옛부터 '메밀묵, 메밀국수, 수수 팥떡, 수수부꾸미, 도토리묵이 유명하였는데 송우막걸리' 또한 이름이 있었다. 최근에는 암반수로 빚는 '포천이동막걸리'가 수출 길에 오르고 '청산김치'가 방송 전파를 타더니 패주골순두부, 이등갈비가 전국의 유명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2005년 갈비 부착의 갈비어부 시비는 오명의 순간이었다. '청정 포천의 브랜드'의 현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웰빙 식품' 시대의 참 살이' 식품의 포

천 고유의 브랜드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과제이자 발전의 요소이기도 하다. 이등갈비, 포천막걸리의 영속적인 참신한 새 브랜드 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얘기가 된다. 다른 고장의 것 보다도 포천의 것은 그 크기가 굵고 수입산 중국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흑대추, 매추, 이추, 참대추를 여러 대추의 포천 대추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아가위술, 칠갈술, 송개떡, 메밀갈국수, 머루주, 대래주, 메루리주, 감주, 다슬기술 등 '맛난 보양 술의 고장'은 어떨까?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丙戌謹賀新年 (병술근하신년)	
曉窓鶻啼瑞徵華(효창각제서경화) 새벽 창기에서 까치가 우니 심서로써 조짐이 보이고	謹賀新年旭日嘉(근하신년축일가) 새로 맞는 새해의 아침해가 아름답구나		
溫氣充房梅香幽(온기충방매향유) 온기가 방을 채우니 매화향이 그윽하고	韶光滿地柳眉遲(소광만지류미지) 밝은 봄빛이 대지에 가득해도 버들꽃은 아직 피지않네		
眷親分散離鄉舍(권친분산리향사) 가족들은 흩어져서 고향을 떠났지만	族戚相逢受福家(족척相逢受福家) 친척들이 다시 만나니 복을 받은 집안일세		
六者會談成事裡(육자회담성사리) 육자회담이 반드시 성사가 되어	平和統一永繁加(평화통일영영가) 평화통일 이루어 영원한 번영을 더하리라		
초대 詩		원앙	
<p>신소설 '원앙도'를 생각하면 이해조 선생님께서 사시던 시절에는 영종의 백로주에도 영복의 산정호수에도 참수의 금수정에도 원앙이 살았나보다</p> <p>김창호 초등학교 시절에는 죽엽산의 동막골에서 노고산의 광릉수 계곡에서 원앙을 보았다</p> <p>지금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27호 경기도 포천시의 새로 1급수에만 서식하고 광릉 계곡에 많이 서식하는 물새로 '늘 함께 있는 의종은 부부'를 상징한다고</p> <p>하지만 광릉계곡에도 보이지 않으니 오래 온 누리에 신의와 행복이 가득할 때까지 노고산 광릉수 계곡에서부터 또다시 원앙의 천지를 만들자</p>		 김창호 이해조문학회장	